



피터 포스트모저(Peter Forstmoser), 2009년 5월 1일부로 이사회 사임 예정
 이사회, 월터 킬홀츠(Walter B. Kielholz) 신임 회장 지명
 마티스 카비알라베타(Mathis Cabiallavetta) 신임 부회장 지명

Contact:

Media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7171

Corporate Communications, London
 Telephone +44 20 7933 3445

Corporate Communications, Asia
 Telephone +852 2582 3660

Corporate Communications, New York
 Telephone +1 212 317 5663

Investor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4444

Swiss Reinsurance Company Ltd
 Mythenquai 50/60
 P.O. Box
 CH-8022 Zurich

Telephone +41 43 285 2121
 Fax +41 43 285 2999
 www.swissre.com

2009년 3월 9일, 취리히 - 스위스재보험 이사회 회장 피터 포스트모저(Peter Forstmoser)가 이사회 회장직 사임을 표명했다. 현 부회장 월터 킬홀츠(Walter B. Kielholz)가 피터 포스트모저의 후임을 맡을 예정이다. 피터 포스트모저 현 회장은 2009년 5월 1일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현재 이사회 임원인 마티스 카비알라베타(Mathis Cabiallavetta)가 연례총회일을 기점으로 부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현 이사회 회장인 피터 포스트모저는 “스위스 재보험이 향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진로를 설정함에 따라 계획 보다 1년 앞서 회장직 사임을 결정했다. 월터 킬홀츠가 후임을 맡아 기쁘다. 월터 킬홀츠는 부회장 마티스 카비알라베타와 함께 회장단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번 개편으로 다음 세가지 분야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다.

- 자사의 핵심 사업에 있어 CEO와 상임이사회(Executive Committee)에 대한 지원 최대화
- 핵심사업 보호를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 위험 최소화
- 전세계 보험시장 내 자금조달 부족현상에 따른 고객의 수요 증가에 대비한 자본관리의 최적화

“스위스재보험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2008년 실적이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핵심사업에는 문제가 없으며 그 전망 또한 밝다. 스위스재보험에는 실력있고 헌신적인 직원이 있을 뿐 아니라 이번 연례총회에서는 자본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월터 킬홀츠는 밝혔다.

킬홀츠는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도전과제를 고려해 볼 때 스위스재보험 이사회 회장직 수행에 전념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했다. 따라서 연례총회 당일을 기준으로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에서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자리에서는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마티스 카비알라베타와는 물론 스테판

리페 (Stefan Lippe) 및 그 경영진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피터 포스트모저는 1990년 스위스 재보험의 이사회 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2000년 회장직에 임명되었다. 피터 포스트모저는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스위스 재보험이 세계 제일의 재보험사 대열에 합류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사회는 피터 포스트모저의 업적, 그의 공정함, 그리고 항상 모든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그의 능력에 감사를 표한다. 피터 포스트모저는 이사회의 회장으로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후 어려운 기간 동안 스위스 재보험을 이끌었다. 포스트모저 회장은 현재와 같이 어려운 금융 환경에서도 링컨 재보험 (Lincoln Re) 인수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는 중요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으며 GE Insurance Solutions의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큰 공을 세운 바 있다. 포스트모저 회장의 재임기간 동안 스위스 재보험은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사상 최대의 수익을 기록하기도 했다. 기업 및 자본시장법은 물론 기업 지배구조 분야에 있어 포스트모저 회장의 폭 넓은 지식과 경험은 스위스재보험과 스위스 기업사회 전반 모두에 공헌했다”고 스위스재보험 이사회 부회장 월터 킬홀츠는 밝혔다.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토마스 베츨러 (Thomas W. Bechtler), 베네딕트 헨트슈(Bénédict G.F. Hentsch), 카스퍼 빌리거 (Kaspar Villiger)도 이번 연례총회에서 이사회 임원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2009년 3월 13일로 예정된 연례총회에서 이사회의 신임 임원 발표는 예정된 바 없다.

편집자 주

월터 킬홀츠 (Walter B. Kielholz)

월터 킬홀츠는 재보험 업계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1989년 스위스재보험에 입사하여 1993년 스위스 재보험의 경영이사회(Executive Board) 임원이 되었고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스위스 재보험의 CEO 직을 역임하였다. 2003년에는 이사회의 상임부회장(Executive Vice Chairman) 및 부회장으로 임명되었다. 2005년 이후부터는 부회장으로서 업무에 주력해 왔다.

마티스 카비알라베타(Mathis Cabiallavetta)

마티스 카비알라베타는 2008년 9월 1일 이후 스위스 재보험의 이사회의 임원을 맡고 있으며 투자 및 자산 운용 (Investments and Assets Management)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 강력한 발언권을 주기 위하여 2008년 가을 설립된 투자위원회 (Investment Committee)의 회장이기도 하다.

스위스재보험

스위스재보험은 세계 최대의 다각화된 글로벌 재보험사 중 하나로 전세계 25 개국 이상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863년 스위스 쾰리히에서 창립된 이래 기업과 기업발전에 중요한 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손해보험 상품, 생명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전통적 재보험 상품과 더불어 보험 기반 기업금융 솔루션과 보완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로부터 'A+'를, 무디스(Moody's)로부터 'A1'을, 에이엠 베스트(A.M. Best)로부터 'A'를 각각 부여 받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913년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만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그 지역 본부는 홍콩에 있다. 2006년 스위스재보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첫 사무소를 개설한지 50년을 맞이했다.